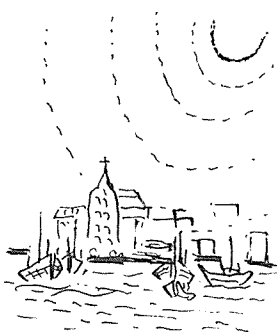


## 태양과 바다와 사랑의 도시

### 나 폴 리



김 윤 기

나폴리하면 밝은 태양과 푸른 바다, 그리고 노래와 사랑이 연상된다. 「오솔레미오」, 「싼타루치아」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폴리의 노래를 부르면 웬지 가슴 속이 흰히 트이고, 기분이 좋아진다.

나폴리의 매력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 같다. 유럽에는 옛부터 「Vedi Napoli e poi muori!」(나폴리를 보고 죽겠다)란 말이 있다. 나폴리를 보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겠다는 것이다.

나폴리의 하늘은 일년내내 거의 구름 한점 없다. 바닷물은 유달리 푸르다. 로마의 황제를 비롯 수많은 예술가들이 나폴리를 사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폴리 항구를 가리켜 세계 3대 미항이라고 칭송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폴리는 로마에서 기차로 2시간반 거리에 있다. 로마에서 아침에 떠나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거리다.

이탈리아의 고대 유적지는 로마의 북쪽에 많다. 피렌체, 보로나, 네네찌아, 피사가 모두 북쪽에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반도의 아름다운 풍광은 나폴리에서부터 시작, 남쪽에 몰려 있다.

꿈의 휴양지 슌렌토, 크리스탈 유리처럼 투명한 물 위에 떠 있는 카프리섬 등이 나폴리와 바로 이웃하고 있다. 1천 7백여년간이나 땅속에 묻혔던 고대도시 폼페이와 유명한 베스비오스 화산도 모두 이 부근에 있는 명소들이다.

옛날의 나폴리는 왕국이었다.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프랑스의 앙주家가 이곳에 와서 왕국을 세우고 나폴리의 왕이 된 것이다. 그러나 16세기초에는 스페인 점령 하에 들어가 일단 왕국이 해체되었다가, 18세기초 다시 프랑스의 부르봉家가 들어와 왕국을 세웠다.

나폴리 왕국은 1861년 이탈리아의 통일왕국이 건설되기까지 계속 되었다. 나폴리에는 지금도 옛날 왕국때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나폴리란 말은 원래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Neapolis=그리스語). 기원전의 나폴리는 그리스의 식민지이었다. 나폴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풍습, 습관에는 지금도 그리스 식의 것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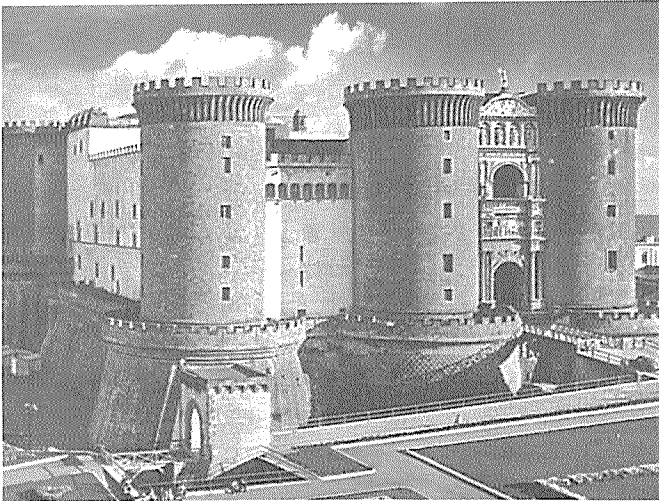
풍광이 아름답고, 양쪽으로 길게 튀어

나온 반도로 천혜의 항구가 된 나폴리는, 전략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입지적 구실을 했다. 때문에 항상 외침에 시달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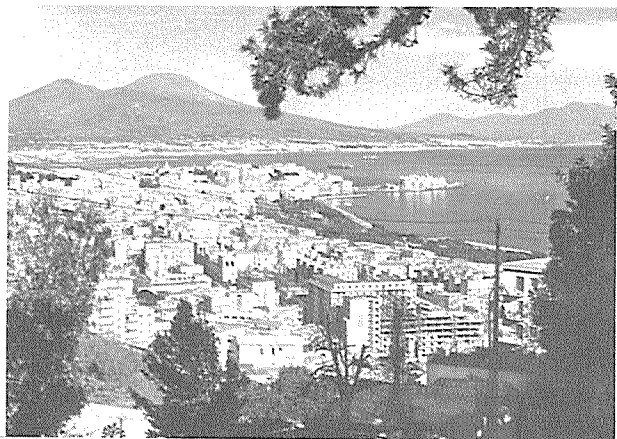
고대로마제국이 번성할 때는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중세때는 비잔틴의 속령도 되었고, 한때는 노르만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앙주家가 왕국을 세우긴 했지만 따지고보면 그도 나폴리인이 아니었다.

### 산타루치아의 언덕길 너머에

이런 그침없는 외침과 정변 속에서 나폴리는 나폴리다운 나폴리의 기질을 키우고 간직해 왔다. “이탈리아” 하면 낭만적이고, 낙천적이고, 정열적인 인간상이 떠오르는데, 이것은 바로 나폴리의



나폴리 왕국.  
뒷쪽은 나폴리  
항구가 있고,  
앞쪽은 젊은이들의  
집결지다. 밤이  
되면 아베르족으로  
붐빈다.



오라찌오 거리에서  
내려다 본  
나폴리의 시가풍경.  
멀리 바다 가운데로  
불쑥 튀어나온  
계란城이 보인다.

기질이기도 하다. 어쩌면 나폴리인의 기질이 세상에는 바로 이탈리아인의 이미지화 되었는지도 모른다.

나폴리에 가면 꼭 봐야 할 곳이 4곳 있다. 즉 신타루치아해안, 왕궁, 보메로 언덕 그리고 서민들의 부락 스파카 나폴리이다.

신타루치아 거리는 길지 않다. 바다속에 떠 있는 델로보城(계란성이라고도 함)에서부터 왕궁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신타루치아 거리이다. 길 양쪽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나이트클럽들이 많으나 그리 화려한 거리는 아니다. 오히려 어둡고 쓸쓸해 보인다.

언덕 아래에 있는 신타루치아 항구도 너무 오래된 탓인가 지저분하고 어지럽다. 어느 쪽에서 보아도 결코 아름다운 항구나 아름다운 거리는 아니다. 그러나 왜 이 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 나폴리인이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타루치아 거리가 끝나면 로마路가 시작된다. 이 로마路는 내륙 깊숙히 끝

이 안보이게 뻗어 나가고 있다. 로마路는 나폴리의 중심부이며 변화가다. 이탈리아 3대 가극장의 하나인 신타카롤로 오페라극장이 오른쪽에 있고, 유명한 쇼팽 거리의 움베르토 1세 아케이드도 부근에 있다.

왕궁 앞의 플레비스씨도廣場은 젊은이의 집결지다. 해가 지면 연인들이 몰려와 사랑을 속삭인다. 이들의 사랑은 산책하면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껴앉고 정열을 쏟는 것이다.

시청앞 광장은 편지봉투처럼 좌우로 길다. 이 광장에 이탈리아를 통일한 빅토리오·에미누엘 2세의 기마상(騎馬像)과 분수가 있고, 건너편에는 세관, 선박회사들이 있는 대형건물과 항구역(港口驛)이 있다.

시청앞 광장에서 동서로 뻗은 길이 움베르토 1세 大路다. 나폴리대학이 이 대로변에 있고, 이 대로가 끝나는 곳이 나폴리 중앙역이 있다.

나폴리에는 2개의 왕궁이 있다. 17세기 초 스페인 지배하에 있을 때 세워진

왕궁은 나폴리왕, 브루붕家の 왕궁으로 8명의 왕조가 이곳에서 왕정을 베풀었다.

별로 크지는 않으나 새빨간 건물벽면에 초록색의 부라인드가 비추어 아름답다. 그리고 왕궁의 한면은 바다에 접해 있다.

왕궁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왕궁은 정확히 말하면 궁전이 아니고 왕성이다. 「양주家の 성」으로 불리우고 있다.

정면에 3개의 등극 탑이 있는데, 이중 2개의 탑 사이에 대리석의 개선문이 있다. 이 개선문은 르네상스 걸작의 하나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건축물이다.

산타푸치아거리에서 서쪽으로 뚫린 해안통거리(파르떼노뻬=Via Partenope)는 한쪽은 바다, 한쪽은 시립공원으로 된 아름다운 도로다.

파르떼노뻬 거리가 시작하는 곳에, 바다에 또 있는 계란성(Castel dell'Ovo)이 있다. 12세기에 세워졌다는 이 성은 지금은 폐가처럼 되고, 그 주변에는 생선가게와 활선어요리 전문점들이 늘어서 우리나라 자갈치시장을 방불케 한다.

파르떼노뻬거리에는 고급 관광호텔들이 늘어서 있고, 카라%로(Via Caracciolo) 거리로 이어지면서 나폴리의 푸름나드가 전개된다. 장장 1킬로나 되는 시립공원에는 수족관도 있다. 아마 나폴리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배경은 바로 이 바닷가 풍광이 아닌가 생각된다.

## 서민들의 부락, 스파카 나폴리

그러나 더욱 나폴리다운 풍물은 스파카 나폴리에서 볼 수 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부락이 형성된 올드타운, 스파카 나폴리는 썬마르티노박물관 아래에 있는 빠스팔레 스쿠라路에서 워르첼라路까지 동서로 2킬로나 뻗어나간 도로 양쪽에 펼쳐진 나폴리의 달동네다.

소위 만국기골목이라는 나폴리 특유의 풍물을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좁은 골목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총천연색의 빨레들이 찬란하게 걸려 있다.

나폴리는 피자와 스파게티의 본고장이다. 마카로니와 스파게티에 사용하는 말린 국수 파스타도 나폴리가 원산지다.

피자에 사용하는 모짜렐라 치즈는 물소우유로 만든 것이며, 나폴리 부근 교외에 나가면 방목하는 물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물소 덕분에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를 얹은 스파게티(Spaghetti al pomodoro)는 나폴리의 명물이다. 계란성 부근에는 해물요리 전문집이 여럿 있다. 지중해에서 잡은 싱싱한 생선을 재료로 했기 때문에 신선미가 있다. 조개·새우·전복 등 우리 구미에 맞는 해물요리를 맛볼 수 있다.

〈필자=해외의학 교류회장·최신여행 정보 발행인〉